

금남로 '세계 최고 거리극' 10만 인파

광주시-문화전당 협업 프린지인터내셔널 성황 스페인·아르헨티나 극단 등 국내외 16개팀 참여 대형축제 가능성 확인...공연계 "지속 개최해야"

금남로 거리를 수놓은 불꽃에 눈길을 뺏겼고 건물 외벽 줄타기 공연은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했다. 지난 주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일대는 시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금남로, 5·18민주광장, 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진 국제거리극 축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 4일 관람객 10만명을 동원하고 막을 내렸다.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는 성공적인 협업모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내외 16개팀을 초청해 다양한 거리 공연을 선보였다.

광주에서 만나기 힘든 작품이 초청된 만큼 반응도 뜨거웠다. 폐막작인 스페인 극단 자사(Xarxa Theatre)의 '마법의 밤'(Magic Night)은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공원까지 왕복하며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모았다.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의 '보알라 정거장'도 인기였다. 남미 토속 음악과 함께 30m 상공에서 선보이는 몸짓을 구경하려는 관람객 수천명이 광장을 매웠다.

2일 '축제를 위한 행진'은 광주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난장이었다. '붉은 땀', '우스꽝스러운 테니스 컵', '침묵 속 외침, 희망?' 등 다른 해외초청작들도 박수를 불렀다.

한국팀들도 눈에 띄었다. '창작중심 단' 팀은 줄 하나에 의지한 채 금남로 한국투자증권건물을 배경삼아 피카소 작품

'꽃과 여인'을 형상화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야간 문화전당 주위를 밝힌 모닥불 50여개로 구성된 연가백 작가의 '탄,탄,탄'은 연인·가족·친구들에게 초여름 밤 낭만을 선사했다. 김정은 작가가 어린이문화원 인근에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한 '개으름의 낭만'은 한낮 피아노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지역 축제·공연계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행사 개최에 대해 광주시와 문화전당 모두 긍정적이지만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또한 해외초청작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외 우수 작품을 공연해 국제적 명성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 공연팀들의 세계 진출을 노려야한다는 내용이다.

공연 주제와 관련, 서울을 중심으로 꾸려진 축제 사무국에 광주 인력을 참여시켜 전문 인력 양성도 해야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공연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만큼 관람객을 배려해야만 공연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종된 시민 의식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지난 3일 5·18광장에서 진행된 '보알라 정거장'에 관람객들이 몰리자 일부 관람객들은 화단을 밟아 훼손시켰다. 금남로 '꽃과 여인'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가 '보알라 정거장'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록도 '할매 천사' 노벨평화상 추천 전남도-오스트리아 티롤 주 손잡는다 도 순방단 티롤 주 방문

전남도가 소록도 '할매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등 선양사업 추진에 오스트리아 티롤 주와 협력하기로 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기중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동유럽 순방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티롤 주를 방문, 두 수녀를 만나 위로했다. <사진>

본명이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oeger·83)와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82)인 두 수녀는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한 톨의 보살도 없이 한손으로 살다가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록도를 떠났다.

전남 방문단은 헤르비히 반슈타 티롤 주의회 의장을 만나 수녀들의 선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이에 앞서 루마니아 클루지주와 신재생 에너지·농업 분야 기술 제휴, 전문가 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



기로 하고 투자의향서를 교환했다.

폴란드 포모르스키에 주와도 유기농업, 신재생 에너지, 관광, 문화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교류사업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기중 부지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됐던 지방외교 폭을 동유럽으로까지 넓히고 전남의 강점인 신재생 에너지와 농업 교류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동유럽 3개국과의 교류를 발판삼아 유럽 지역과 우호 교류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검-정유라 공방...영장 재청구하나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21)씨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 맞닥뜨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이 전날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기각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이는 검찰 수사

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멸은 됐지만, 범죄 기각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소심사이며 정씨는 그 밑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기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기소 대 재판 중인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나일 강→나일강...외래어 띄어쓰기 규정 변경

외래어 표기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변경돼 외국 지명인 '에베레스트 산', '나일 강', '발트 해'의 표기가 '에베레스트산', '나일강', '발트해'로 바뀌었다.

2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 일부 개정안에서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는 띄어쓰고, 우리말에 붙

을 때는 붙여 쓴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海), 섬, 강(江), 산(山), 산맥 등에는 붙여 쓰거나 한해 앞에 어떤 말이 오는 경우 띄어 쓴다.

이번 조치는 '지중해'나 '흑해'는 붙여 쓰고 '아라비아 해', '카리브 해'는 띄어 써야 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사업 속도

행자부 승인 이어 조례안 내달 상정

광주·전남 상생 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낸다.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의 최대 관건이었던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에 올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 다음달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기본 업무와 운영, 사무국 설치 규정,

업무 위탁, 기금설치 등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진흥원 목적과 법인 설립·운영, 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를 새롭게 보완했다. 진흥원은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 학술·연구와 자료발간, 호남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호남학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한다.

법인 임원으로는 이사장과 원장,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진흥원 사무를 전담할 사무국은 3개 부 17명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20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행정동, 연구동, 수장고 등을 갖춘 진흥원 건물도 마련한다. 건립비와 별도로 시·도가 5년간 10억원씩 모두 100억원과 3억원씩의 출연금 등 모두 106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 등은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국학진흥원(안동),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등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연구원과 차별성 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법인 설립 등기, 조직 구성을 거쳐 하반기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07년부터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설립추진단도 구성됐지만, 예산 확보 애로와 출자·출연 기관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호남에는 옛 선비의 문집 20여만 권, 고문서 15만 점, 고서화·고목판 등을 합쳐 모두 70여만 점 이상의 사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개인, 문중, 기관이 사료를 소장하면서 훼손 또는 소멸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는 만큼 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뒤 법인 설립 등기 등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원(보1,599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2,999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99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9억원
4. 하남동 일반산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야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 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주 임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쌍암동 5층 상가건물 대 650㎡ 건물 2,200㎡ 매 35억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물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도로전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저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심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2017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은 논외)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출출연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원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용,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7. 6. 5.(월) ~ 2017. 6. 16.(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6. 5.(월) ~ 2017. 6. 16.(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6. 5.(월) ~ 2017. 6. 16.(금) 09:00~18:00
전형일	2017. 6. 27.(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7. 20.(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환경경영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경제학/전자컴퓨터공학(계량학과)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DONGNAM NATIONAL UNIVERSITY